

Audio Aero

CD 플레이어의 기술력으로
더 좋은 음질 추구

인터뷰어 | 최성근

Jerome Andre | Managing Director



처음 뵙겠습니다. 오디오 에어로 사의 매니징 디렉터이신 제롬 앙드레씨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디오 에어로는 한국 내에서 CD 플레이어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월간 오디오 독자 분들도 제롬 앙드레씨와의 인터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국 방문은 홍콩과 중국 출장에 때문입니다. 홍콩과 중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입니다. 사실 이번 일을 준비하기 위해 CES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난 뒤 한국 수입원인 태인기기와 올해와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디오 에어로는 CD 플레이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메이커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 에어로는 전 세계 몇 개국으로 수출하는지, 한 해 매출은 얼마인지, 오디오 에어로에 직원 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오디오 에어로의 매니징 디렉터로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35명 정도됩니다. 40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2007년 매출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직 매출 정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매출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한 해 매출이 약 200만 유로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올해 매출은 작년 매출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에어로가 개발한 캐피톨레 CD 플레이어는 클래식 버전과 레퍼런스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차이입니다. 클래식 버전과 레퍼런스 버전의 차이는 프리부의 유무입니다. 사실이 부분이 저희 회사가 갖는 프라이드입니다. 오디오 에어로는 원래 CD 플레이어를 주력



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앰프를 가진 오디오파일을 겨냥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CD 플레이어 개발 과정 중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디오 에어로 CD 플레이어에는 진공관 회로가 들어가는데 이 회로의 전압 증폭 과정에서 음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하다가 프리앰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음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프리앰프 기능까지 갖추게 된 레퍼런스 버전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디오 에어로에는 프레스티지 CD/SACD 라는 레퍼런스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제품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오디오 에어로의 레퍼런스급 플레이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오디오 에어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레스티지 CD/SACD 플레이어를 아시는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회사의 레퍼런스 CD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디오 에어로는 SACD 플레이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SACD 플레이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에어로가 SACD 플레이어를 만든 것은 SACD 플레이어에 필요한 기술 중 CD 플레이어 음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프레스티지

CD/SACD 플레이어가 SACD 플레이어로 소개되고 있지만 우수한 CD 재생 능력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는 기기입니다. 물론 SACD 재생 능력도 좋습니다만 이 역시 CD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에어로의 프레스티지 라인업에는 모노블록 진공관 파워 앰프도 있습니다. A클래스 증폭에 40W 출력을 자랑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이 파워 앰프와 잘 어울리는 스피커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CD 플레이어 개발 과정 중에 음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의 플레이어와 가장 잘 맞는 파워 앰프를 개발해보는 것이었고 그 결과물이 프레스티지 라인업으로 소개한 파워 앰프입니다. 이 파워 앰프는 스피커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다인오디오와도 잘 맞는 편이고 아방가르드와도 잘 맞는 편입니다.

라인업에 CD 플레이어, 파워 앰프가 있는데 프리앰프 개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CD 플레이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프리앰프 기능을 탑재한 CD 플레이어를 발매한 이유는 기술적 이득에서 신호의 경로를 줄여 우리 제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자는 취지였을 뿐 프리앰프 시장에서 성공을 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프리앰프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오디오 에어로의 전문성을 잘 설명해주신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디오 에어로의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품 라인업을 보면 프리마 시리즈와 캐피톨레 시리즈의 등급 차이가 매우 큼니다. 이 사이에 미들클래스 제품을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 제품군에 대해 정확히 바라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저에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웃음). 말씀하신대로 프리마는 입문기이고 캐피톨레는 하이클래스입니다. 이번에 미들클래스의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한두 달 내에 한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으로 월간 오디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일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음악을 더 큰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간 오디오를 애독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즐거운 음악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앙드레는 웃음을 주는 매우 유쾌한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다. 오디오 에어로에 입사하기 전까지 그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10년 동안 플루트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음악을 떠난 자신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재능에 한계를 느낀 그가 음악적인 역량을 더욱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오디오 업계에 몸을 담아 보기로 결심했고 현재 오디오 에어로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



오디오 에어로 프레스티지 SE CD 플레이어